

## 남동구, 국내·외 우수 인증 획득

###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남동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26년 국내·외 우수 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외 우수 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각종 우수 인증을 원활히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구는 인증 획득에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관련 비용을 기업당 최대 500만 원 한도(인증 분야별 한도 상이)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연도 매출액 200억 이하이며, 남동구 관내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갱신·양수 인증은 제외하고 신규 인증만 지원한다.

박종호 남동구청장은 “우수 인증은 기업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인증 획득 과정에서 겪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2월 27일까지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biznamdong.go.kr)에서 모집공고를 확인 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웅진군, 웅진 미래산업

### 스마트팜 준공식 개최

웅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10일, 영흥면 내리 일원에서 웅진군 농업의 혁신을 이끌 '웅진 미래산업 스마트팜'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문경복 웅진군수를 비롯해 지역의원,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시설 현장에서 진행됐다.

웅진 미래산업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하여 온도와 습도, 일사량 등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양액과 관수까지 체계적으로 제어하는 첨단 농업시설로, 영흥면 내리 496-129번지 일원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 45억원이 투입되어 총 면적 5,312㎡ 규모이며, 1,248㎡의 임대형 스마트팜 3동, 832㎡의 교육 실습용 온실 1동, 사무실 등 부대시설 736㎡이 조성되었다.

이 시설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청년농업인이 각각 1,248㎡ 규모의 스마트 온실을 임대 운영하고 지역농업인은 832㎡ 규모의 스마트팜 실습동에 참여하여 청년농업인과 1:1 매칭되어 스마트팜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받으며 운영한다.

문경복 웅진군수는 “웅진 미래산업 스마트팜은 청년 인구 유입과 선진 농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팜을 통해 선진 기술 이전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농업인에게 선진 농업기술을 확산시켜 웅진 농업 발전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뿌리산업 현황 진단과 일자리 과제 발굴 포럼

### 실태조사 기반 산업 진단과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1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 뿌리산업 현황 진단과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천지역 뿌리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 현황과 일자리 실태를 공유하고, 지역 제조업의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의 역할과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뿌리산업 관련 기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정밀가공 등 인천의 자동차·기계·전자 등 주력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제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산업이다.

인천시 분석에 따르면, 이들 주력 제조업의 매출 구조 중 약 80% 이상이 뿌리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뿌리산업의 경쟁력은 곧 지역 제조업 전반과 일자리 기반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천광역시, 고용노동부,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인천 뿌리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산업 구조 진단 ▲청년 뿌리기업 재직자의 직장 만족도와 이직 요인 분석 ▲향후 인천 뿌리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김민경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

원이 「우리는 왜 인천 뿌리산업을 위기라고 불리 왔는가: 실태조사가 보여 준 산업의 또 다른 모습」을 주제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천 뿌리산업의 산업 구조와 변화 가능성 분석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는 오테히 인천대학교 교수가 「청년 뿌리기업 재직자의 직장 만족과 이직」을 주제로 청년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이직 요인을 분석하고, 일자리 여건 개선과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최태민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산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천광역시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천 뿌리산업의 현안과 향후 정책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뿌리산업을 단순히 ‘위기 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넘어, 객관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과 일자리의 가능성을 함께 논의한 자리”라며, “논의된 의견을 향후 인천형 뿌리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현장 기반 실태조사와 정책 소통을 지속 강화해 지역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하린 기자

## 유정복·김정헌, ‘생생톡톡 애인(愛仁) 소통’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9일 영종북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생생톡톡 애인(愛仁) 소통’ 행사에서 신설 영종구를 ‘글로벌 미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을 같이 했다.

병오년 새해 연두 방문차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김정헌 구청장, 유정복 시장, 시·구의원, 지역 단체·주민 대표,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종구의 성공적 출범 등 인천시의 2026년도 주요 시장 운영 방향에 관한 설명에 이어, 향후 영종구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정헌 구청장은 유정복 시장에게 “영종구는 공한 경제권을 바탕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잠재력이 큰 도시”라며 “영종구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해 인천시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영종구 신청사 건립 사업 지원 확대 ▲임시청사 임차 비용 지속 지원 ▲청라하늘대교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된 제3유보지의 조속한 개발 ▲공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마이스(MICE), 항공정비(MRO),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육성을 주요 현안

으로 건의했다.

영종구의 경우 신청사 건립과 임시청사 임대 등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더 광범위한 범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 체제 개편과 청라하늘대교 개통에 발맞춰, ‘공항버스 리무진 청라하늘대교 경유 및 영종하늘도시 정착’, ‘영종구청 중심 급행 순환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더불어 제2공항철도, 영종트램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종합병원·감염병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강화, 제3유보지 바이오 특화단지 국가산단 지정 등의 현안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거듭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신설 영종구는 항만·공항을 넘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천 대개조의 중심”이라며, 제3의 개항을 통한 “영종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국제도시는 영종구 출범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라며 “영종구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성공적 출범과 안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하대학교, ‘인천형 AI 교육을 위한’ 협약

### ‘인천형 AI 교육 및 개방형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9일 상상플랫폼에서 인하대학교와 ‘인천형 AI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및 ‘인천형 인공지능 개방형 캠퍼스(OPEN 캠퍼스) 구축·운영을 위한’ 부속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교육청과 인하대학교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천형 인공지능 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고, 제물포 일원에 인공지능 개방형 캠퍼스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초·중·고생 애주거별 인공지능 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 인공지능 창의·융합 인제 30만 명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확대,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등에 힘을 모으게 된다.

특히, 제물포AI융합교육센터 공간을 활용해 교육청의 ‘인천형 인공지능 개방형 캠퍼스’를 조성하고 대학의 ‘I-RISE’ 사업과 연계해 원도심의 가치 재창조와 교육·산학이 공존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두 건의 협약은 대학·지역사회와 함께 인천형 인공지능 교육 기반을 넓히는 계기”라며 “개방형 캠퍼스를 거점으로 학생의 배움과 교원의 전문성을 함께 키우는 협력 모델을 확산하고 I-RISE 사업의 원도심 가치 재창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심하린 기자

## 강화역사박물관, 설맞이 민속놀이 프로그램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설 명절을 맞아 강화역사박물관에서 전통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설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문화를 친숙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민속놀이로 구성됐다.

체험 프로그램은 ▲대형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뺑지치기 ▲사방치기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놀이 위주로 운영돼 설 명절 특유의 흥겨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사는 2월 14일(토)부터 2월 18일(수)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진행되며,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설날 당일인 2월 17일은 박물관 휴관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전통 민속놀이 체험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